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이에리자* · 이시은†

서일대학교 간호학과, 송곡대학교 간호학과
(2018년 8월 24일 접수: 2018년 9월 21일 수정: 2018년 9월 27일 채택)

Cultural Compet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Eliza Lee* · Si Eun Lee†

*Department of Nursing, Seoil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Songgok University†

(Received August 24, 2018; Revised September 21, 2018; Accepted September 27, 2018)

요 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S와 I지역의 종합대학 간호대학생 127명과 비 간호대학생 124명, 총 25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적 역량 정도는 평균 5점 만점에 간호대학생 3.35점, 비 간호대학생 3.23점,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평균 5점 만점에 간호대학생 3.53점, 비 간호대학생 3.37점으로 나타났으며, 두 군 모두 문화적 역량 및 심리적 안녕감 정도가 '중'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이 비 간호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은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기술, 문화적 경험, 자아수용성, 환경에 대한 통제,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정규교육과정에 다문화교과목 편성 및 다문화현장체험, 특강 등 교과외 활동을 병행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가지고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문화적 역량, 심리적 안녕감, 간호대학생, 비간호대학생, 다문화

Abstract : This study was done to compare cultural competence(CC) and psychological well-being(PWB) in nursing students(NS) and non-nursing students(NNS). Participants were 251 NS and NNS at college in S and I city. Mean score(range:1~5) of CC in NS was 3.35 and NNS, 3.23 and PWB in NS was 3.53 and NNS, 3.37. Thus, mean score of CC and PWB of two group were above the average and NS significantly higher than NNS. Significant relationship were in NS CC, cultural awareness, knowledge, sensitivity, skill and experience, PWB, self-acceptance, environmental mastery,

†Corresponding author
(E-mail: si174@hanmail.net)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autonomy, purpose in life, personal growt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cultural competencies and to provide nursing considering cultural diversity in PWB through extracurricular activities, lectures related to multiple cultures and the placement of multi-cultural subjects in the curriculum.

Keywords : Cultural Competency, Psychological Well-being, Nursing Students, Non-nursing Students, Multiple Cultures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구 수는 2016년 현재 316,067가구이며, 다문화 혼인 비중은 2008~2016년까지 평균 9.16%로 나타나[1,2], 다문화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 중 1/10에 가까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 가구 수의 증가는 곧 국내 의료기관을 찾게 될 다문화 대상자, 즉 의료수요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국내 병원들에서는 국제진료센터와 같은 특수부서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늘어나는 다문화 대상자를 특수부서에서만 담당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임상 간호사가 응대하게 될 간호대상자의 유형 안에 다문화권 대상자가 당연히 포함되며,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최근 10년 넘게 약 10% 가량을 차지하는 다문화권 대상자 가구 수도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래의 전문 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이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이해 및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문화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적 역량이란, 개인의 문화적 다양성의 경험, 문화적 인식 및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문화적 민감성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능력이다[3,4]. 간호에서 문화적 역량이 갖는 의의는 간호사가 문화적 다양성을 자발적으로 인식 및 공감하고 건강신념, 관습, 건강관련 지식의 심층적인 탐구와 경험적으로 체득한 지식을 토대로 간호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간호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5]. 문화적 역량을 갖춘 간호사의 간호 제공은 간호대상자의 만족감 및 치료의 순응도 향상, 질적 간호제공에 대한 인식 개선, 효율적인 상호작용 및 건강 증진 등[6]과

같은 긍정적 측면의 시너지 효과로 발현된다.

한편,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간호대상자의 의료지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더욱 세분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전문성과 책임감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임상 간호사는 업무수행과정 중 정신·심리적 측면에서 양적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7], 감정노동 수행, 직무소진을 경험하며[8], 최근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에 의해 보호자가 없는 병동을 운영하면서 간호대상자의 간호요구도 등의 증가로 인해 신체증상과 직무소진으로 인한 우울[9]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다문화권 간호대상자의 증가로 간호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간호제공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그 어느 때보다 임상 간호사에게 심리적 안녕감이 필요하다.

심리적 안녕감은 단순히 정신적 질병이 없는 상태에 국한되기 보다는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심리적 측면인 자아수용성,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과 개인적 성장을 포괄하는 통합된 개념의 안녕감[10]이다. 다문화권 대상자를 포함한 간호대상자는 신체적, 사회적, 정신·심리적, 영적으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요구를 가진 존재로, 간호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통합적 측면의 전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자신이 통합된 개념의 정신 건강상태인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해야 하며, 간호대상자의 질병 치료, 예방 및 건강증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통합된 개념의 심리적 안녕 상태는 단기간에 형성되어 지기는 어려우며, 간호사를 준비하는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준비되어야 할 충족필수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국내외적으로 간호대학생 및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문화적 역량에 관한 연구는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로 도구개발 연구[5], 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 콘텐츠 적용효과 연구[11,12], 다문화경험[13], 감성지능[14]과 문화적 역량간의 관련성 연구 및 문화적 역량의 영향 요인[15,16]연구 등이며, 비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로 다문화 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17] 연구 등으로 문화와 관련된 탐색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로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18], 스트레스[19], 자아존중감, 정서지능[20]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 및 심리적 안녕감 영향 요인[21] 연구 등이며, 비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로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비교 연구[22] 및 대학생의 문화 성향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23] 등으로 정신·심리적 측면의 개념들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선행연구에서 문화적 역량과 정신·심리적 측면의 '감성 지능', '정서 지능'과의 관련성[14, 20], 문화적 역량과 유사한 개념인 '문화 성향'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련성[23]이 보고된 바 있어, 사회적 측면의 문화적 역량과 정신·심리적 측면의 심리적 안녕감 간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규교육과정과 비정규교육과정에서 진행된 다문화 관련 경험 및 다문화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타 전공 계열, 즉 비 간호대학생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다문화권 대상자를 간호하게 될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간호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갖고 있는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과 비 간호대학생과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학생 생활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S지역과 I지역에 소재한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정도 및 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문화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비교 및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지역과 I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건강 관련 교양 수업에 참여한 1~2학년에 해당되는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version3.12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연구표본의 크기는 유의수준(α) .05, 효과크기(f^2) .3, 검정력($1-\beta$) .95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는 111명이었다. 이에 필요한 표본수 산출에 근거하여 검정력을 높이기 위해 편의 추출된 간호대학생 135명, 비 간호대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불완전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통계분석에 반영된 최종 연구대상자 수는 간호대학생 127명, 비 간호대학생 124명이었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일반적 특성 및 문화관련 특성 15문항, 문화적 역량 58문항, 심리적 안녕감 4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문화적 역량

본 연구에서의 문화적 역량은 간호대학생 및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Han[5]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도구개발과정에서 예비 도구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58 문항(문화적 인식 12문항, 문화적 지식 18문항,

문화적 민감성 10문항, 문화적 기술 12문항, 문화적 경험 6문항) 5점 Likert식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아니다' 1점으로 채점하며, 점수범위는 최소 58점에서 최대 29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Han[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6$ 이었고, 하위 영역별로 '문화적 인식' Cronbach's $\alpha=.86$, '문화적 지식' Cronbach's $\alpha=.94$, '문화적 민감성' Cronbach's $\alpha=.77$, '문화적 기술' Cronbach's $\alpha=.96$, '문화적 경험' Cronbach's $\alpha=.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95$ 이었고, 하위 영역별로 '문화적 인식' Cronbach's $\alpha=.83$, '문화적 지식' Cronbach's $\alpha=.92$, '문화적 민감성' Cronbach's $\alpha=.77$, '문화적 기술' Cronbach's $\alpha=.92$, '문화적 경험' Cronbach's $\alpha=.84$ 이었다.

2.3.2 심리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의 심리적 안녕감은 Ryff[24]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총 54문항을 Kim, Kim, Cha[25]가 번안 및 수정한 총 46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46문항(자아수용 8문항, 환경에 대한 통제 8문항, 긍정적 대인관계 7문항, 자율성 8문항, 삶의 목적 7문항, 개인적 성장 8문항) 5점 Likert식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아니다' 1점 척도로 채점하며, 점수범위는 최소 46점에서 최대 23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Park[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1$ 이었고, 하위 영역별로 '자아수용' Cronbach's $\alpha=.84$, '환경에 대한 통제' Cronbach's $\alpha=.73$, '긍정적 대인관계' Cronbach's $\alpha=.80$, '자율성' Cronbach's $\alpha=.78$, '삶의 목적' Cronbach's $\alpha=.76$, '개인적 성장' Cronbach's $\alpha=.70$ 이었으며, Kim, Kim, Cha[25]의 연구에서 하위 영역별로 '자아수용' Cronbach's $\alpha=.76$, '환경에 대한 통제' Cronbach's $\alpha=.66$, '긍정적 대인관계' Cronbach's $\alpha=.72$, '자율성' Cronbach's $\alpha=.69$, '삶의 목적' Cronbach's $\alpha=.73$, '개인적 성장' Cronbach's $\alpha=.70$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89$ 이었고, 하위 영역별로 '자아수용성' Cronbach's $\alpha=.78$, '환경에 대한 통제' Cronbach's $\alpha=.65$, '긍정적 대인관계' Cronbach's $\alpha=.82$, '자율성' Cronbach's $\alpha=.66$, '삶의 목적' Cronbach's $\alpha=.76$, '개인적 성장'

Cronbach's=.72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S지역과 I지역 소재 종합대학의 재학생 중 건강 관련 교양 수업에 참여한 1~2학년 해당되는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을 각각 135명씩을 임의 추출하였으며 표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 익명성 보장 및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 등을 설명한 후 참여를 허락한 학생들에게 연구동의서를 받고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불안전하게 응답한 설문지 간호대학생 8부, 비 간호대학생 11부를 제외하여 통계분석에 반영된 최종 연구대상자 수는 총 251명으로, 간호대학생 127명, 비 간호대학생 124명이었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설문작성 전에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 익명성 보장 및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 등을 설명한 후 참여를 허락한 학생들에게 연구동의서를 받았으며, 연구대상자가 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후에 모두 폐기 처리됨을 알려주었다.

2.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1)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문화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 2)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와 t-test를 이용하였다.
- 3)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문화관련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간호대학생은 86.6%, 비 간호

대학생은 61.3%로 여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연령 분포를 보면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12 ± 1.84 세였고, 간호대학생 19.68 ± 1.68 세, 비 간호대학생이 20.58 ± 2.24 세였다. 연령별로 간호대학생은 20세 이하가 51.2%를 차지하였고, 비 간호대학생은 21세 이상이 51.6%를 차지하였다. 종교의 경우 '없다'고 대답한 경우가 간호대학생은 59.0%, 비 간호대학생은 65.3%로 가장 많았다. 경제수준은 '중'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간호대학생은 89.8%, 비 간호대학생은 82.3%로 가장 많았다. 전공계열 분포를 보면 간호 계열 50.6%, 비 간호계열은 인문사회계열 17.5%, 이학·공학계열 15.5%, 의료보건계열 12.4%, 예술계열 4.0%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문화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간호대학생 74.8%, 비 간호대학생 72.6%가 외국방문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어실력은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다'가 두 집단 모두 가장 많아 간호대학생은 85.0%, 비 간호대학생은 77.4%였다. 간호대학생 60.6%, 비 간호대학생 56.5%가 외국인과 교류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37.8%, 비 간호대학생 36.3%가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 92.9%, 비 간호대학생 89.5%가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체험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간호대학생 11.0%, 비 간호대학생 7.3%로 나타났다.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 친척, 친구가 있는 경우는 간호대학생 18.9%, 비 간호대학생 17.7%로 나타났다. 다문화 관련 교과목 수강에 관해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가 간호대학생 81.1%, 비 간호대학생 71.0%로 가장 많았고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일반 개설 교과목에서 일부 내용을 배운 경우가 간호대학생 11.0%, 비 간호대학생 18.5%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외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간호대학생 11.8%, 비 간호대학생 2.4%로 나타났다. 국내 다문화 현장 체험 경험이 있는 경우가 간호대학생 1.6%, 비 간호대학생 0.8%로 나타났다<Table 1>.

3.2.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제 변인 정도 비교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을 비교한 결과, 문화적 역량에 대

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평균평점이 5점 만점에 간호대학생이 $3.35 \pm .42$ 점, 비 간호대학생이 $3.23 \pm .46$ 점으로, 두 집단 모두 문화적 역량 정도가 '중'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정도가 비 간호대학생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1$, $p=.035$).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하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간호대학생은 '문화적 인식(4.25점)', '문화적 민감성(3.84점)', '문화적 기술(3.18점)', '문화적 경험(2.85점)', '문화적 지식(2.76점)' 순으로 나타났고, 비 간호대학생은 '문화적 인식(3.97점)', '문화적 민감성(3.56점)', '문화적 기술(3.07점)', '문화적 지식(2.81점)', '문화적 경험(2.77점)' 순이며 가장 낮은 영역은 간호대학생에서는 '문화적 지식(2.76점)'이며 비 간호대학생에서는 '문화적 경험(2.77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은 문화인식($t=5.00$, $p<.001$)과 문화 민감성($t=4.64$, $p<.0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이 비 간호대학생보다 문화적 인식과 문화적 민감성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평균평점이 5점 만점에 간호대학생이 $3.53 \pm .43$ 점, 비 간호대학생이 $3.37 \pm .37$ 점으로, 두 집단 모두 심리적 안녕감 정도가 '중'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고,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정도가 비 간호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3.23$, $p=.001$).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간호대학생은 '긍정적 대인관계(3.91점)', '삶의 목적(3.70점)', '개인적 성장(3.67점)', '자아수용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3.48점)', '자율성(3.04점)' 순이고 비 간호대학생은 '긍정적 대인관계(3.67점)', '개인적 성장(3.49점)', '삶의 목적(3.45점)', '환경에 대한 통제력(3.35점)', '자아수용성(3.29점)', '자율성(3.00점)' 순이며 가장 낮은 영역은 두 집단 모두 '자율성' 항목으로 간호대학생 3.04점, 비 간호대학생 3.00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자아수용성($t=2.69$, $p=.007$), 긍정적 대인관계($t=3.10$, $p=.002$), 삶의 목적($t=3.37$, $p=.001$)과 개인적 성장($t=2.61$, $p=.009$)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이 비 간호대학생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N=251)

Variables	Categories	Nursing students	Non-nursing
		(n=127) n(%)	students (n=124) n(%)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17(13.4)	48(38.7)
	Female	110(86.6)	76(61.3)
Age(yr) (M±SD : 20.12±1.84)	<20	65(51.2)	60(48.4)
	≥ 21	62(48.8)	64(51.6)
	M±SD	19.68±1.68	20.58±2.24
Religion	Protestant	32(25.2)	24(19.4)
	Catholic	11(8.7)	7(5.6)
	Buddhism	9(7.1)	9(7.3)
	None	75(59.0)	81(65.3)
	Other	0(0)	3(2.4)
Economic state	good	6(4.7)	10(8.1)
	fair	114(89.8)	102(82.3)
	poor	7(5.5)	12(9.7)
Major field	Nursing	127(50.6)	
	Natural & Engineering Sciences		39(15.5)
	Humanities & Social Sciences		44(17.5)
	Arts		10(4.0)
	Health Care		31(12.4)
Cultural Characteristics			
Experience of foreign travel	Yes	95(74.8)	90(72.6)
	No	32(25.2)	34(27.4)
Foreign language ability	Be fluent	12(9.5)	4(3.2)
	Be able to have a simple conversation	108(85.0)	96(77.4)
	Be unable	7(5.5)	24(19.4)
Experience of association with foreigners	Yes	77(60.6)	70(56.5)
	No	50(39.4)	54(43.5)
Experie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Yes	48(37.8)	45(36.3)
	No	79(62.2)	79(63.7)
Feel the necess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Yes	118(92.9)	111(89.5)
	No	9(7.1)	13(10.5)
Multi-cultural experience	Yes	14(11.0)	9(7.3)
	No	113(89.0)	115(92.7)
International married family, relatives & friends	Yes	24(18.9)	22(17.7)
	No	103(81.1)	102(82.3)
Experience of taking a course about multi-cultural education in curriculum	Took the class multi-cultural subject in curriculum	6(4.7)	7(5.6)
	Took the class multi-cultural contents in other subject in curriculum	14(11.0)	23(18.5)
	Both are included	4(3.1)	6(4.8)
	Haven't experienced	103(81.1)	88(71.0)
Experie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out curriculum	Yes	15(11.8)	3(2.4)
	No	112(88.2)	121(97.6)
Multi-cultural field experience in Korea	Yes	2(1.6)	1(0.8)
	No	125(98.4)	123(99.2)

Table 2. The Comparison of Variables i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N=251)

Variables	Nursing students (n=127)	Non-nursing students (n=124)	Possible Range	t	p
	M±SD	M±SD			
Cultural competence	3.35±.42	3.23±.46	1~5	2.11	.035*
Cultural awareness	4.25±.40	3.97±.46	1~5	5.00	.001***
Cultural knowledge	2.76±.57	2.81±.65	1~5	-0.70	.480
Cultural sensitivity	3.84±.48	3.56±.46	1~5	4.64	<.001***
Cultural skill	3.18±.64	3.07±.65	1~5	1.28	.201
Cultural experience	2.85±.78	2.77±.82	1~5	0.85	.394
Psychological Well-Being	3.53±.43	3.37±.37	1~5	3.23	<.001**
Self-acceptance	3.48±.58	3.29±.51	1~5	2.69	.007**
Environmental mastery	3.48±.50	3.35±.63	1~5	1.70	.089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3.91±.61	3.67±.63	1~5	3.10	.002**
Autonomy	3.04±.65	3.00±.45	1~5	0.48	.629
Purpose in life	3.70±.61	3.45±.54	1~5	3.37	.001**
Personal growth	3.67±.57	3.49±.49	1~5	2.61	.009**

* $p<.05$ ** $p<.01$ *** $p<.001$

3.3.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r=.321, p<.001$)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문화적 인식($r=.505, p<.001$), 문화적 지식($r=.849, p<.001$), 문화적 민감성($r=.721, p<.001$), 문화적 기술($r=.800, p<.001$), 문화적 경험($r=.724, p<.001$), 자아수용($r=.272, p=.002$), 환경에 대한 통제($r=.266, p=.002$), 긍정적 대인관계($r=.255, p=.004$), 자율성($r=.200, p=.024$), 삶의 목적($r=.204, p=.021$), 개인적 성장($r=.243, p=.006$)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비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r=.090, p=.322$)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문화적 인식($r=.513, p<.001$), 문화적 지식($r=.869, p<.001$), 문화적 민감성($r=.705, p<.001$), 문화적 기술($r=.857, p<.001$), 문화적 경험($r=.792, p<.001$), 자율성($r=.359, p<.001$)에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4. 논 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임상 실무현장에서 만나는 간호대상자의 문화적 배경도 다양하며 다문화권의 대상자들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간호대학생도 취업 전 다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통해 다문화 간호대상자를 응대할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 관련 특성을 파악한 결과, 다문화 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간호대학생 92.9%, 비 간호대학생 89.5%)가 매우 높은 반면, 1/3 정도(간호대학생 37.8%, 비 간호대학생 36.3%)의 학생들만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 관련 교과목 수강을 한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간호대학생 81.1%, 비 간호대학생 71.0%)이었고,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경우도 독립된 교과목명으로 다문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간호대학생 4.7%, 비 간호대학생 5.6%)가 일반 개설 교과목에서 다루진 다문화 관련 내용을 배운 경우(간호대학생 11.0%, 비 간호대학생 18.5%)보다 적었다. 이는 아직도 대학교육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교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과외 과정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은

Table 3. The Relation of Variables Cultural Compet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Variables	Cultural competence			
	Nursing students (n=127)		Non-nursing students (n=124)	
	r	p	r	p
Cultural awareness	.505	<.001	.513	<.001
Cultural knowledge	.849	<.001	.869	<.001
Cultural sensitivity	.721	<.001	.705	<.001
Cultural skill	.800	<.001	.857	<.001
Cultural experience	.724	<.001	.792	<.001
Psychological Well-Being	.321	<.001	.090	.322
Self-acceptance	.272	.002	.083	.358
Environmental mastery	.266	.002	.085	.346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255	.004	-.115	.203
Autonomy	.200	.024	.359	<.001
Purpose in life	.204	.021	-.034	.705
Personal growth	.243	.006	.024	.787

경험이 있는 경우가 간호대학생 11.8%, 비 간호대학생 2.4%로 나타나 타 전공에 비해 간호대학생들이 다문화 교육을 접하는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교육을 받았던 경우도 대부분 교과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문화 관련 교과목이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편성되도록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편성의 중요성은 문화적 역량과도 관련된다. Lee와 Park의 대학생 대상 연구[17]와 Cha[15]의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관련된 수업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문화적 역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11, 12]에서 중재 프로그램 적용 후 문화적 역량이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에게 강의, 그룹토의 및 성찰일지 작성, 다문화 관련 문화콘텐츠 동영상 시청 등 다문화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11], 국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에게 교육과정으로 통합적 문화 콘텐츠 적용을 통해 문화적 역량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12].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수많은 다문화 대상자를 응대하게 될 미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는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간호학과 전공 특성에 맞는 다양한 다문화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정도를 비교한 결과, 간호대학생(3.35점)이 비 간호대학생(3.2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두 집단 모두 '중' 수준이상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을 조사한 Lee와 Park[17]의 연구에서 문화적 역량 정도는 평균 3.48점(5점 척도)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조사한 Choi[16]의 연구에서 평균 3.27점(5점 척도)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국내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정도는 '중' 수준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하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에서 문화적 인식(간호대학생 4.25점, 비 간호대학생 3.97점)과 문화적 민감성(간호대학생 3.84점, 비 간호대학생 3.56점)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이 비 간호대학생보다 문화적 인식과 문화적 민감성 역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인간, 환경, 건강, 간호와 같은 간호의 중심 개념을 근간으로 한 간호 학문적 토대가 타 전공 학생들에

비해 문화적 인식과 민감성 등에 영향을 미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가장 낮은 영역은 간호대학생에서는 문화적 지식, 비 간호대학생에서는 문화적 경험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정도를 ‘문화적 인식 및 민감성, 문화적 행위’ 2개 하위 영역으로 살펴본 Cha[15]의 연구(7점 척도)에서 ‘문화적 인식 및 민감성’ 평균 5.24점, ‘문화적 행위’ 평균 3.28점으로 문화적 인식 및 민감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문화적 인식, 문화적 태도, 문화적 지식과 기술’ 3개 하위 영역으로 살펴본 Lee와 Park[17]의 연구(5점 척도)에서 가장 높은 영역은 문화적 인식(3.78점)이었고, 그 다음 순으로 문화적 태도(3.73점), 문화적 지식과 기술(2.92점)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대학생의 문화적 인식, 민감성은 ‘중’ 수준 이상인 것으로 사료되나 상대적으로 지식, 경험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육과정 상 다문화 관련 과목의 개설 및 운영시 간호대학생에게는 문화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문화 체험을 했던 경험(간호대학생 11.0%, 비 간호대학생 7.3%),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 친척, 친구가 있는 경우(간호대학생 18.9%, 비 간호대학생 17.7%), 국내 다문화 현장 체험이 있는 경우(간호대학생 1.6%, 비 간호대학생 0.8%)를 조사한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대학생들이 다문화와 관련된 현장체험 기회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역량은 다양성의 경험, 문화적 인식, 문화적 민감성 정도, 이전의 삶에서 가족,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된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3]. 또한 문화적 역량은 공식적인 지식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문화적으로 숙련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태도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역량이 발전되려면 개인,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경험이 필요하다[12]. 따라서 공식적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한 다양한 다문화 현장 체험 및 다양한 교과외 특강 등을 병행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비교한 결과, 간호대학생(3.53점)이 비 간호대학생(3.37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두 집단 모두 ‘중’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조사한 Kang[21]의 연구에서 평균 3.34점이었고,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조사한 Park[23]의 연구에서 평균 155.90점(230점 만점)으로 나타나 5점 척도 변환시 평균 3.39점에 해당되어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중’수준 이상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6개 차원으로 살펴본 결과,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 두 집단에서 ‘긍정적 대인관계’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나(간호대학생 3.91점, 비 간호대학생 3.67점), 두 집단에서 모두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 두 집단에서 모두 타인과 따뜻하고 만족스럽고 신뢰에 바탕을 둔 긍정적 대인관계[23, 24]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인 항목은 ‘삶의 목적(3.70점)’, ‘개인적 성장(3.67점)’이었고, 비 간호대학생의 경우 ‘개인적 성장(3.49점)’, ‘삶의 목적(3.45점)’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항목별 순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항목의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은 삶의 목표와 방향감이 있고, 과거와 현재의 삶을 의미 있다고 여기며,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와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자신이 계속해서 성장,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는[23, 24] 것으로 사료된다.

심리적 안녕감의 차원 중 가장 낮은 순위로 두 집단 모두 ‘자율성’으로 간호대학생 3.04점, 비 간호대학생 3.00점으로 나타났다. 본 도구에서 ‘자율성’은 결단력과 독립적인 성향을 의미한다[23, 24]. 이는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차원 중 ‘자율성’ 항목이 점수자체로는 ‘중’ 수준 이상이지만, 상대적으로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 모두 동일하게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대학생들의 결단력과 독립적 성향이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원도구가 동일하나 척도 및 항목이 다른 Cha[22]의 연구(6점 척도)에서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6개 차원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한국 대학생에게서 가장 높은 차원은 1순위 ‘긍정적 대인관계’, 2순위 ‘개인적 성장’, 3순위 ‘삶의 목적’으로 나타나 상위 항목 순위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가장 낮은 순위로 ‘자아수용성’이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는 아니지만, '자율성'이 하위 2순위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차원 중 '자율성' 즉 결단력과 독립적인 성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가구당 자녀수가 줄면서, 성인기에 접어들어도 여전히 부모의 통제하에 지내면서 부모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선행연구 [26]에 따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대학생 자녀의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부모 의존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및 교과외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력, 결단력, 독립적 성향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대학생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간호대학생의 경우 문화적 역량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적 역량의 하위영역(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기술, 문화적 경험) 모든 항목과 심리적 안녕감 6개 차원(자아수용성, 환경에 대한 통제,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모든 항목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국내외적으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으로 비교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비 간호대학생의 경우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적 역량의 하위영역(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기술, 문화적 경험) 모든 항목과 심리적 안녕감 6개 차원 중 '자율성' 항목에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대상 선행연구[23]에서 사회 내에서 개인이 갖는 신념, 태도, 규준, 가치 패턴과 같은 문화 성향을 수평적, 수직적 측면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나누어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측면의 문화 성향이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성향'은 문화적 경험, 인식, 민감성이 통합되어 나타난 능력인 '문화적 역량'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적 측면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라 생각되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간호대학생 및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반복연구 및 다차원적 측면의 개념들과의 관련성에 관한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이상의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및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중'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취업 전 교육과정 및 교과외 과정에서 다양한 다문화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여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권 대상자를 포함한 간호대상자 간호시 심리적 안녕감을 가지고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간호중재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을 편의 표집하여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을 비교 분석한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표본 이상으로 일반화하거나 확대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정도는 평균평점 5점 만점에 간호대학생이 3.35점, 비 간호대학생은 3.23점으로, 두 군 모두 문화적 역량 정도가 '중'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이 비 간호대학생보다 문화적 역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평균평점 5점 만점에 간호대학생이 3.53점, 비 간호대학생은 3.37점으로, 두 군 모두 심리적 안녕감 정도가 '중'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이 비 간호대학생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간호대학생은 문화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 간호대학생은 문화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차원 중 '자율성' 항목에서 문화적 역량과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문화 관련 교과목이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편성되도록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대학생 대상의 다문화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시 분야별 전공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맞춤형 교육과정이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운영시 문화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다문화 현장 체험 및 다양한 교과외 특강 등을 병행하여 다문화 및 문화관련 체험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차원 중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정 및 교과외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하여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력, 결단력, 독립적 성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Nu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by province[cited 2017 Sep 5], Available From: <http://kosis.kr>. (accessed July., 10, 2018)
2.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Population trend survey : multi cultural marriage by region groups[cited 2017 Nov 28], Available From: <http://kosis.kr>. (accessed July., 10, 2018)
3. Fitzpatrick, JJ, McCarthy G. (ed.). *Theories Guiding Nursing Research and Practice : Making Nursing Knowledge Development Explicit*. p.159-171,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14). Available From: <https://books.google.co.kr>. (accessed July., 10, 2018)
4. S. M. Schim, A. Z. Doorenbos, J. Miller, R. Benkert,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 instrument",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Vol.11, No.1 pp. 29-40, (2003). DOI: 10.1891/jnum.11.1.29.52062
5. S. Han,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2014).
6. S. Henderson, M. Horne, R. Hills, E. Kendall, "Cultural competence in healthcare in the community : a concept analysis",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Vol.26, No.4 pp. 590-603. (2018). DOI : 10.1111/hsc.12556
7. B. Lee, "Trend analysis of nurses' stress based on the last 10 years of international research",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1, No.1 pp. 27-36. (2011). DOI : 10.5807/kjohn.2012.21.1.27
8. K. J. Lee, E. Lee, "The relationship of emotional labor, empowerment, job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of clinical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0, No.2 pp. 130-142. (2011). DOI : 10.5807/kjohn.2011.20.2.130
9. E. Lee, S. S. Chang,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of nurses among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5, No.4 pp. 340-351. (2016). DOI : 10.5807/kjohn.2016.25.4.340
10. C. D. Ryff,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 lif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4, No.4 pp. 99-104. (1995). DOI : 10.1111/1467-8721.ep10772395
11. G. C. Lee, Y. Park, H. Lee, K. Lee, "The

- effect of a convergence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cultural competence and empath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12 pp. 337-346. (2015).
DOI : 10.14400/JDC.2015.13.12.337
12. R. A. Caffrey, W. Neander, D. Markle, B. Stewart, “Improving the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results of integrating cultural content in the curriculum and an international immersion experie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44, No.5 pp. 234-240. (2005).
 13. S. Park, “Relationship between self-reflec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multi cultural experience and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12 pp. 345-355. (2016).
DOI : 10.14400/JDC.2016.14.12.345
 14. 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cultural empathy and cultur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Pusan. (2016).
 15. Y. Cha, *Factor related to cultural competence among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in Korea*.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15).
 16. S. H. Choi,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6 pp. 3379-3390. (2017).
 17. M. Lee, Y. Park, “Cultural competency by multicultural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12 pp. 657-665. (2016).
DOI : 10.14400/JDC.2016.14.12.657
 18. H. J. Hwang, M. R. Lim, “The mediating effects that nursing college students' self-leadership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have on their profession and psychological-wellbeing”,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0 pp. 215-227. (2017).
 19. E. Kim, “Convergence study on stress, stress of clinical practice, coping, and psychosoci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3 pp. 91-99. (2018).
DOI : 10.15207/JKCS.2018.9.3.091
 20. Y. E. Lee, E. Kim, S. Y. Park, “Effect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23, No.3 pp. 385-393. (2017).
DOI : 10.4094/chnr.2017.23.3.385.
 21. M. K. Kang, “Factor affe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Future Convergence contents realiz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ession*. (pp. 387-388). Seoul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8, May).
 22. K. H. Cha, “Relationships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Korean and America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1, No.3 pp. 321-337. (2004).
 23. J. W. Park, *The influence of cultural disposition and self-construal on university students psychological-well being*.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2016).
 24. C. D. Ryff,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7, No.6 pp. 1069-1081. (1989).
 25. M. S. Kim, H. W. Kim, K. H. Cha, “Analyses o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PWB)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15, No.2 pp. 19-39. (2001).
 26. Y.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ocial problem solving i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2011).